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이름	홍*찬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오레건주 포틀랜드
파견대학	Portland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7 . 10 ~2018 . 06 . 18
귀국여부	귀국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포틀랜드 주립대학교는 오레건주의 포틀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운타운과 매우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레건주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많은 강과 산이 어우러져 있는 곳 입니다. 특히 포틀랜드는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자체는 한국 대학들과는 다르게 다운타운과의 경계가 없어, 도심속에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캠퍼스는 다운타운과의 경계가 모호하며 넓게 펼쳐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비슷하거나 더 넓습니다. 학교시설은 오래된 시설부터 새로 만들어진 시설까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없었고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분위기는 흔히들 상상하던 미국 대학교생활과 유사합니다. 모든면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우며 안전한 곳이라 생각합니다.</p>

<p>2017 2학기 2018 1학기 수업</p>	<p>제가 수강한 과목으로는 전공과목에 PROPERTIES OF MATERIAL,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OLID WORKS가 있고 교양과목으로는 INTRO COLLEGE WRITING, COLLEGE WRITING, FIRST AID, FLEXIBLE FITNESS, SWING DANCE, BALLROOM DANCE, PIANO, GUITAR, VOCAL이 있습니다.</p> <p><b>PROPERTIES OF MATERIAL</b>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기 때문에 수강한 과목입니다. 첫 쿼터에 수강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필요한 과목이었기에 수강신청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한국분이시라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 6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매우 큰 강의 였습니다. 수업내용은 재료의 기본적인 성질과 특성을 다루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실험이 평가요소가 됩니다. 생각처럼 굉장히 무난한 수업이었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니다.</p> <p><b>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b> 평소에 현미경에 관심이 많았고, 본교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500레벨, 즉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실험시간에는 조교의 설명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워 주변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자주사현미경에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실습이 수업에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실험 그리고 PPT발표가 평가요소입니다.</p> <p><b>SOLID WORKS</b> 먼저, 솔리드웍스란 쉽게 말해 미국의 3D캐드 프로그램을 말하며 현재 관련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저에게 3D 캐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수강하게 되었고, 실제로 수강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고 재미있었던 수업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또한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여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수업은 랩을 포함해 일주일에 두번이며 하루는 강의진도를 나가고 하루는 과제를 하며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말고사 시험을 솔리드 웍스 자격증취득으로 대체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p> <p><b>INTRO COLLEGE WRITING, COLLEGE WRITING</b> 이 수업은 교환학생으로써 제가 이 수업을 수강했을때 영어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p>
-------------------------------------	---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 글쓰기 수업이었는데, 미국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토론했던 것들이 미국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수업이고, 제가 수강했던 수업의 선생님의 성함은 Covey Henry였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저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 사려깊고 굉장히 유동성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수업은 3개의 에세이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참여도와 성실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FIRST AID** 이 수업은 제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쯤 수강하고 싶었던 수업입니다. first aid 즉, 응급구조를 뜻하는데 이 수업 또한 수강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업내용은 기본적인 응급구조술을 다루고 있으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제 그리고 참여도와 성실성이 평가됩니다.

**FLEXIBLE FITNESS** 교환학생은 매 쿼터당 12학점을 수강신청 해야하는데, 만약 1,2 학점이 부족하시다면 이 수업을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과목은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그 내용을 적어서 교수님께 제출하면 학점을 인정받게 되는 과목입니다.실제로 PSU는 렉 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렉 센터에 다양한 활동을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수업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SWING DANCE, BALLROOM DANCE** 미국 영화속에 나오는 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저는 영어라는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과목들을 많이 선택했었는데, 춤 강의 또한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가까워질 수 있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춤을 배운 경력은 얼마 안되지만 교수님과 친구의 권유로 스윙과 왈츠 퍼포먼스를 할 기회를 잡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춤사위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p><b>PIANO</b> 가장 꾸준히 3개의 쿼터동안 수강했던 과목입니다. 사실 수업시간에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수업은 아니었지만 그냥 재미있었고 흥미로웠기 때문에 꾸준히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멜로디와 코드에 대해서 배웠고 매주 퀴즈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p> <p><b>GUITAR</b> 평소에 기타를 조금 연주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강했지만 수업이 조금은 지루하고 너무 초보자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타를 어느정도 연주할 줄 아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p> <p><b>VOCAL</b> 이 수업은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수강했다기 보다는 영어 발음을 교정해보려고 수강했던 과목입니다. 복식호흡을 배우고 입모양을 교정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영어발음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 공간에 앉아 마주보며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민망했지만 적응이 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또한 남들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 <p>성공적인 교환학생을 위해서는 균형있는 수강신청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을 균형있게 짜서 만족스러운 학기들을 보냈습니다. 교양수업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균형있는 시간표를 짜길 추천합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포틀랜드의 날씨는 비가 많이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연중 강수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산 또는 우비를 챙기라고 다들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포틀랜드인들은 후드티를 하나 입고 우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포틀랜드의 여름은 굉장히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유일하게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계절이고 한국보다는 덥지 않다고 합니다. 포틀랜드의 겨울은 조금 춥기는 하지만 한국보다는 춥지 않으니 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p>

안전	<p>포틀랜드는 서부에 위치해서 미국 중부에 위치한 타 지역보다 인종차별이 적고, 굉장히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마약이 합법인 주이고 미국 어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총기소유가 합법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주의하고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던 기숙사 앞에서 총기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생활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p>
숙소	<p><b>학교기숙사-Mongtgomery</b> 저는 몽고메리라는 기숙사에서 3쿼터동안 생활했습니다. 몽고메리는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의 기숙사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숙사로 기숙사비가 가장 저렴한 곳입니다. 몽고메리에는 룸메와 함께 방을 쓰거나 혼자서 방을 쓸 수 있으며 가격 때문인지 봄 학기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곳 입니다. 다른 곳에서 비해서 시설이 많이 뒤쳐지는 편이나 저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불편함점을 꼽자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공용으로서 1층 다이닝룸에 있다는 점입니다.</p>
식사	<p><b>학교 Meal Plan</b> 저는 학교 Meal Plan을 규칙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폭식을 하고 싶거나 풍족하게 먹고 싶을 때면 이용했을 정도로 굉장히 음식의 질이 괜찮았습니다. 항상 나오는 음식이 비슷했지만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구성이 괜찮기 때문에 가끔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p> <p><b>외부식당</b> 학기가 마무리 되어 갈 즈음에는 외부식당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항상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학교가 다운타운과 근접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좋은 식당이 많았습니다.</p> <p><b>직접 요리</b> 저는 생활비를 아껴보려고 직접요리를 해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관념도 생기고 요리실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국은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을 무시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숙사에서 생활하신다면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p>

교통	포틀랜드 주립대학교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용했던 교통편으로는 '맥스'라는 지상철이 있습니다. 맥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곳을 대부분 갈 수 있었고 그 이외의 장소는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상철로써 '스트리트 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운타운과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에 노선을 두고 있고 PSU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트리트 카를 가장 많이 이용해서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700	인천공항-시애틀-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인천공항
Fees	\$ 5,922	3 Quater Charge Fee( ASRC Student Rec Center FEE, Student Incidental Fee, Room & Board Fees, Undergrad Res Tuition FEE, and so on...)
보험료	₩ 666,900	하이카 해외장기체류 보험
숙소	\$ 3,720	Mongtgomery기숙사, 3 terms, 위의 Fees에 포함
식비		
교통비(학기중)	\$ 720	Street Car, Max 이용
책값	\$ 100	렌트하거나 한국에서 미리 구입
여행비 (비행기값 포함)	약 \$ 6000~7000	라스베가스, 애리조나 주, 뉴욕 맨해튼, 워싱턴, 캐나다 밴쿠버, 시애틀, 보스턴, 올랜도, 뉴멕시코,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 외 여러 포틀랜드 유명한 명소
기타 지출비	약 \$ 3000~ 4000	식비
합계	약 \$ 22,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처음부터 준비할 때 꼼꼼히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견되기에 앞서 작성한 서류들은 꼼꼼히 정리해 두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 되지만 계좌를 만들기 전까지는 한국카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카드를 만드셔야 하고 지출계획은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세워 두셔야 10개월간의 생활동안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접 그곳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카카오 बैं크와 같이 입금 출금이 간편한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बैं크 같은 경우는 수수료 5천원으로 한화를 미화로 바꾸어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본인이 특정한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해야 한다면 출국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에서는 본인이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약을 한국에서 의사와 상의 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그 곳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 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환학생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각자 나름대로 방향성을 지닌 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임합니다. 단 한명도 아무 생각 없이 미국으로 향하는 학생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출국전, 본인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준비사항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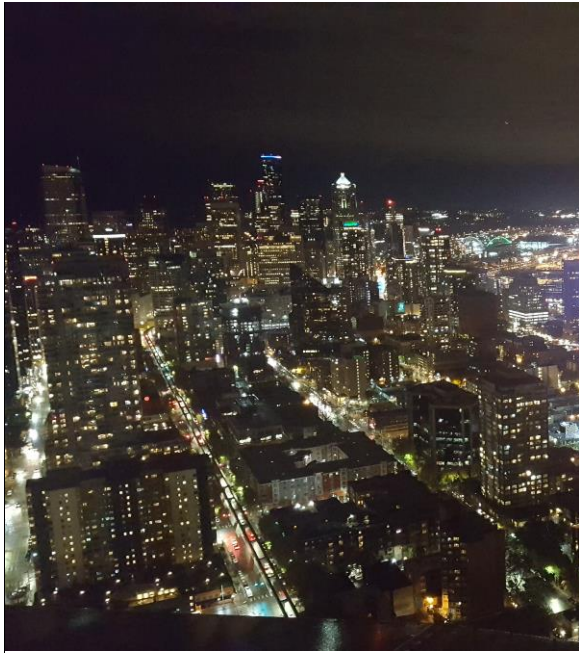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설렘과 긴장감을 가지고 밤 새 잠을 못이루다 비행기에 오른 그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10개월간의 미국여행은 시작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 날을 회상하며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교환학생 생활이 성공적이었다고 제 스스로에게 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그 경험만큼 넓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하는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에 친해지겠단느 목표 하나만으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목표를 향한 자신감 하나만으로 수업에 열중했고, 그 곳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제가 생활했던 포틀랜드 도시를 여행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했던 록 센터에서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건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마무리 되면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안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뉴욕의 맨해튼, 보스턴, 워싱턴, 올랜도의 디즈니 랜드, 뉴멕시코, 라스베가스, 5대 캐니언, 로스엔젤레스, 시애틀, 캐나다의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까지, 정말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건강했음에도, 제 스스로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게 맞나?, 이러다가 전과 별반 다름게 없는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가는게 아닌가?".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저는 처음 생각했던 대로 최대한 노력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기로 마음 먹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제 모습을 돌아보며, 성장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성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시애틀의 밤 전경



오레건주 밴드(도시 명)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오레건 바다



친구들과의 등산



기숙사에서 바라본 야경



일본인 친구들과